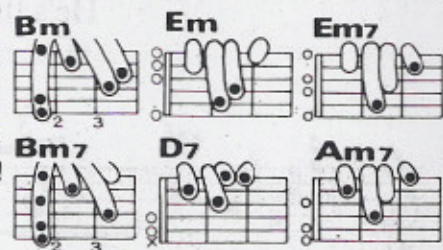


# A WHITER SHADE OF PALE

(어 와이터 웨이드 어브 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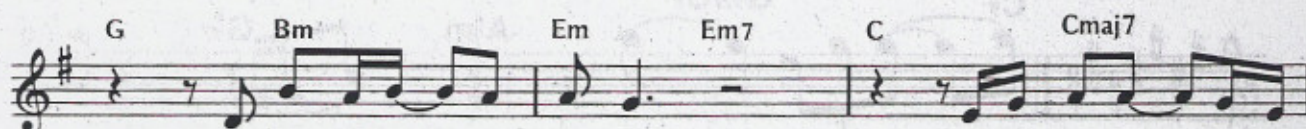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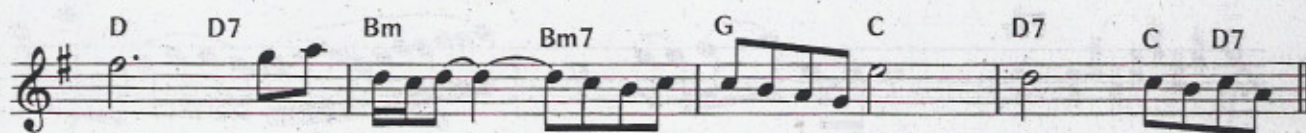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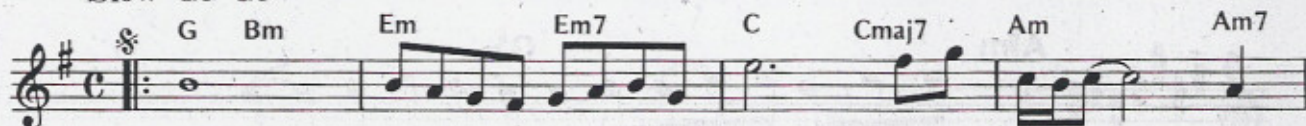


1962년 영국의 남부에서 리듬 앤 브루스 그룹으로 출발한 '페러마운츠'로부터 리더인 부르키가 탈퇴하여 자신의 곡을 녹음하기 위해 결성한 밴드가 프로콜 하룸이다. 이 그룹은 신비스럽고 초현실주의적인 기사들과 괴서의 음산한 오르간 연주가 특색을 이룬 이 곡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전주는 바하의 칸타타를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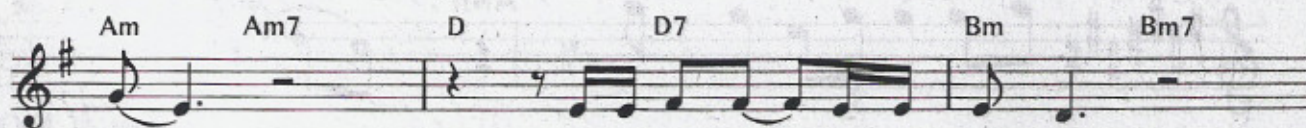
Words & Music by K. Reid & G. Brooker  
As recorded by Procol Harum

Slow G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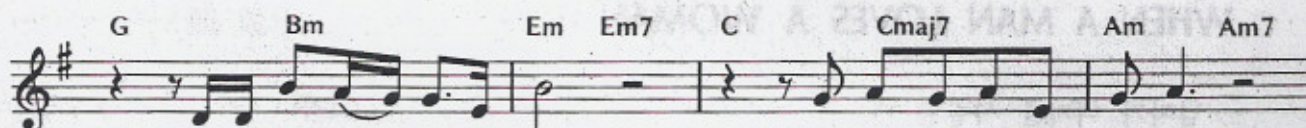
We skipped the light\_ fan - dan - go  
위 스킵트 더 라이트 팬 댕 고  
She said there is\_\_\_ no rea - son,  
쉬 새드 데어이즈 노 리 즌

And turned cart-wheels\_cross the  
앤드 턴드 카트 휠스 크로스 더  
And the truth is\_\_\_ plain to  
앤드 더 트루스 이즈 플레인 투



floor, \_\_\_  
플로어  
see, \_\_\_  
시

I was feel - ing\_\_\_ kind of sea - sick  
아이 위즈 필 링 카인드 어브 시 식  
But I wand - ered\_\_\_ through my playing cards  
벗 아이윈더 드 스로우 마이 플레이잉 카즈



But the crowd called out for more  
벗 더 크로우드 콜드 아웃 퍼 모어  
And would not\_\_\_ let her be  
앤드 우드 낫 렛 허 비

The room was hum-ming hard- er  
더 룸 위즈 허 밍 하더  
One of six-teen vestal ver-gins  
원 어브 식스 틴 베스탈 버 진스

D D7 Bm Bm7 G Bm

As the ceil - ing\_ flew a - way\_      When we called out\_ for an -  
 애즈 더 세일링 플류 어 웨이      웬 위 콜드 아웃 퍼 어  
 When were leav - ing\_ for the coast\_      And al - though my\_ eyes were  
 웬 워 리빙 퍼 더 코스트      앤드 올 도우 마이 아이즈 워

Em Em7 C maj7 Am

oth - er drink      The wait - er brough\_ a tray\_      And so it  
 나 더 드링크      더 웨이 터 브로우 어 트레이      앤 소 잇  
 o - pen      They might just have\_ well been closed  
 오픈      레이 마이트 저스트 해브 웰 빈 클로즈드

G Bm Em Em7 C Cmaj7 Am Am7

was\_ that lat - er\_      As the mil - ler told his tale\_  
 워즈 댓 레이 터      애즈 더 밀 러 톨드 히스 테일

D D7 Bm Bm7 G C G D7

*D.S. and F. O.*

That her face at first just ghost - ly      Turned a whit - er\_ shade of pale\_  
 댓 히 페이스 앳 퍼스트 저스트 고스틀리      턴드 어 와이트어 셰이드 어브 페일

## A WHITER SHADE OF PALE (그늘진 창백한 얼굴)

우리는 가벼운 스페인 탱고를 추었다. 그리고 마루를 건너며 재주를 넘기도 했지만 나는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사람들은 다시 하라고 떠들어 댔어 방은 점점 더 웅성거렸지 천정이 날아가서 우리는 술을 그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웨이터가 다시 쟁반을 가져왔지 그러나 잠시 후 방앗간 주인이 객담을 꺼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아주 창백해지고 말았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카드 놀이를 하면서 곰곰히 생각했지 그녀를 그대로 놓아둘 것을 그랬다고 열여섯명의 성치녀 중 하나라는 그녀를 누가 해변에 버릴려고 하는지 나의 눈은 언제나 크게 떠 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잘 숨겨왔나보다 그러나 잠시후 방앗간 주인이 객담을 꺼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주 창백해지고 말았지.